

수신 : 원장

참조 : 경영본부장, 센터소장, 동북아팀장

<중국경제동향보고 2001-36>

2001. 10. 15

KIEP 북경사무소

중국의 불량자산 처리 실적과 과제

1. 개요

□ 최근 중국정부는 “국유은행 불량자산 처리를 위한 실무회의”를 개최, 효율적인 불량자산 처리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하였음.

- 금번 실무 회의에는 華融(공상은행 산하), 東方(중국은행 산하), 信達(건설은행 산하), 長城(농업은행 산하) 등 4개 자산관리공사 간부들을 비롯하여 經濟體制改革研究會, 亞洲研究所, 증권감독위원회 등이 참석함.

2. 불량자산 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논의 내용

□ 華融자산관리공사는 1999년 성립 이후 약 1,400억 元의 불량자산을 매입하였으며, 이중 200억 元 이상의 자산을 현금화 함. 또한 장부상에만 존재하는 1,300여 억 元의 자산을 처리함.

- 화용의 관계자는 금융자산처리의 경험 부족으로 자산가치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, 처리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함.

□ 長城자산관리공사측은 자산관리공사의 법률적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

- 중국의 자산관리공사는 외국 기관에 비해 부채기업에 취할 수 있는 점권권, 특별조사권 등 법적 권한이 미흡하여 해당기업에 대한 충분한 실사가 어렵다고 주장함. 또한 지방정부의 보호주의와 행정간섭도 심각하다고 지적함.

- 長城자산관리공사는 1999년 10월 설립 이후 농업은행의 불량자산 3,458억 원을 전량 매입하여 채무 상환, 주식 전환, 자산 양도, 임대, 자산 재조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.

o 그러나 2001년 8월 현재 처리한 불량자산은 200여억 원이며, 자산 회수는 61억 원, 그중 현금화된 자산은 24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힘.

□ 東方의 陳江旭 부총재는 자산관리공사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가 불량자산 처리에 방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함.

□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량자산 처리의 문제점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함.

- 誠通集團의 田源 회장은 은행 자산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국유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은행의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함.

o 또한 부실기업의 구조적인 비효율성으로 불량자산이 또다시 늘어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바 채무의 주식전환, 법적 해결 등을 담당하는 제 1시장과 불량자산 및 대출의 유동성 증가로 자산가치를 높이고, 시장 매매를 활성화시키는 제 2시장으로 나누어 불량자산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함.

- 經濟體制改革研究會의 高尚全 회장은 불량자산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4가지를 지적함.

o 첫째, 국유상업은행 및 국유기업이 여전히 정부에 의존하는 등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 부족, 둘째, 자산매각, 자산 재배치, 협의이전, 경매 등 다양한 형태의 불량자산 처리방안 도입 부족, 셋째, 불량자산 처리에 대한 관련 당국의 관리 및 감독 소홀, 넷째, 외자 및 민간자본의 참여 여건 미성숙

□ 同 회의에서는 외자를 이용한 불량자산 처리 방안도 논의되었음.

- 외자 이용은 ▲불량자산 처리의 효율성과 수익성 제고에 유리, ▲외국의 자산관리공사와 투자은행 진출 증가로 선진 경험 및 경영 기법 습득에 유리, ▲불량자산 처리비용 절감, ▲외자를 통한 국유기업 구조조정 가속화 등을 기대할

수 있음.

- 한편, 2001년 6월까지 4대 금융자산관리공사가 처리한 불량자산의 원가는 2,712억 원, 회수된 자산은 1,374억 원으로, 총 580개 국유기업에 대한 채무의 주식 전환이 실시되었음.
- 장성은 300개 기업, 150억 원의 불량자산을 활성화 시켰으며, 동방은 4대 공사 중 가장 많은 381억 원의 불량자산을 처리하였음. 화융공사는 전체 불량자산 151억 원 중 48억 원을 회수하여 회수율이 가장 높았으며, 신달은 회수 금액이 100억 원에 이룸.
- 그러나 이들 4대 공사가 회수한 부실 자산은 이들 공사가 인수한 전체 부실자산 1조 3,939억 원의 10%에 불과한바, 나머지 90% 이상의 불량자산은 처리되지 않거나 회수되지 않은 상태임.

3. 평가 및 시사점

-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불량자산의 처리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는 있지만 그 방향 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.
- 불량자산의 처리는 현대기업제도의 정착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국유기업의 경영 개선에도 일정한 효과가 있었음.
- ▲국유기업의 對은행 원리금 상환 조건 완화, ▲경영관리 개선, 효율성 제고 등 시스템 개혁을 위한 유리한 환경 조성, ▲전반적인 금융시장의 체질 개선, ▲주식시장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
- 한편, 금후 중국내에서 불량자산 처리 시장의 대외개방이 적극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.
- 信達공사는 미국계 펀드 및 독일의 도이치방크와 합자회사 설립에 합의, 공동으로 불량자산 처리를 추진하고 있음.

- 東方공사 또한 외국계 은행과 珠海지역의 불량자산 매각을 협의 중인바, 이같은 불량자산의 해외 매각은 WTO 가입 이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. (***)

중국경제뉴스

1. 인민은행장, 국유상업은행의 3단계 개혁 방안 제시

- 戴相龍 인민은행장은 장기적인 개혁(5년 이상)을 통해 4대 국유은행을 국제 금융시장에서 일정한 경쟁력을 갖춘 대형 현대화 상업은행으로 개혁할 것이라고 밝힘.
- 戴은행장은 금년부터 현대기업제도의 요구에 근거하여 국유상업은행에 대한 다음과 같은 3단계 종합개혁을 실시한다고 함.
 - ① 국유독자회사 방식에 근거하여 경영관리제도를 주식제 개혁에 맞추어 개혁
 - ② 국유상업은행을 국가지배주주, 국내기업, 주민 및 외국자본이 지분 참여한 주식제 상업은행 등으로 개편
 - ③ 국가지배주주 주식제 상업은행의 공개 상장 추진
- 금년 6월말 현재 중국·상업·농업·건설 4대 국유독자 상업은행의 자산은 전체 예금금융기관 총자산의 63%를 차지하는 11.4조 元임.
(經濟日報, 2001. 10. 2)

2. 홍콩 외환보유액 1,134억 달러

- 홍콩외환관리국에 의하면 9월말 현재 홍콩의 외환보유액은 1,134억 달러를 기록함. 홍콩의 외환보유액은 일본, 중국, 대만에 이어 세계 4위 규모임.
(國際商報, 2001. 10. 9)

3. 8개 외자보험회사에 영업허가증 발급

- 중국보험감독위원회가 지난 9월 25일 8개 외자보험회사에 영업허가증을 발급
 - 8개 보험회사는 생명보험과 산재보험 회사가 각각 4개로 그중 독일계 보험회사 2개사, 스위스, 미국, 영국, 프랑스보험회사 각각 1개사가 합자보험회사 설립을

허가 받았으며, 현재 상해에서 영업중인 프랑스 및 영국계 보험회사는 지점 설립을 허가 받음.

- 중국 보험산업 인사들은 외자보험회사의 진입이 단기적으로 시장충격이 클 것으로 전망함.
- 특히 보험업이 특성상 영업직 인재의 능력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국내 보험회사의 인재유실이 심각할 것으로 기대됨.
- 외자보험회사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中國人民保險公司, 中國人壽保險公司, 中國再保險公司 등 3개 국유독자 보험회사를 주식제 보험회사로 개조하고, 기존의 주식제 보험회사는 더욱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정책결정과 경영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임.(經濟日報, 2001. 10. 10)